



2012 엑스포 여수로

BIE실사 D-3

“두 번 실패는 없다” 유치 자신감 넘쳐

실사단 감동 문화예술이벤트 등 마련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전남도, 여수시는 여수박람회 유치에 관한 첫 관문인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현지 실사(9~13일)를 3일 앞둔 6일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실사단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 국적의 카먼 실비안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실사단은 오는 9일 입국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사일정에 돌입한다.

11일 오후부터 여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지실사 준비는 실사단에 큰 ‘감동’을 전하는 컨셉으로 계획돼 있다. 실사단이 여수공항에서 시정으로 향하는 연도에는 자발적으로 환영 나온 시민들이 실사단을 맞이하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다.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한국의 국어대 학생들이 실사단원 출신 국가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오

현실 여수시장과 박철 한국의국어대 총장은 6일 오전 서울 한국외대 총장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외대는 여수를 방문하는 실사단원들의 모국인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루마니아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과와 교수, 학생들이 여수 현장에서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공연을 벌인다.

여수시청 앞부터 쌍봉사거리 인근 500m 거리에 나라별로 70m씩, 해당국의 거리를 조성하고 국기와 실사단원의 캐리커처를 들고 정성스럽게 맞이한다. 일명 ‘감동의 500m 거리’를 만들어 실사단원들이 여수에 큰 호감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밤 여수 해양공원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열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된다. 12일 실사단은 헬기로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신항 일대와 수려한 다도해의 경관을 둘러본다. 이어 박람회 홍보관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의 유치의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이날 밤 여수 해양공원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열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된다. 12일 실사단은 헬기로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신항 일대와 수려한 다도해의 경관을 둘러본다. 이어 박람회 홍보관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의 유치의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



고흥 거금 연도교 붕괴...2명 사망

5일 오후 5시 20분께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내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중이던 인부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상보 7면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원산지 표시만 잘해도 FTA 파고 넘을수 있다

모든 음식점 전면 확대...이력추적제 강화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남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형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실시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국산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한우·육우·젖소로 세분하고 수입산은 수입국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 업소가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으로 한정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는 전체 음식점의 0.7%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대형 음식점은 광주 141개, 전남 109개 등 250개. 광주 시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음식점이 1만5천여개 인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업소가 전체 음식점의 1%에도 못미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3월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지만 단 한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하지 못했다.

축산업계에서는 “현행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로는 수입 쇠고기의 불법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산지 표시 대상기준을 높여 해당 업소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특히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확대하고, 쇠고기의 품종과 유통경로·질병 유무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이력추적제’ 도입 등의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단속 인력이 적은 것도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원산지 증명서와 판매한 쇠고기가 일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거검사를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지만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1~2명 정도여서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社告

‘월요광장’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의 필진이 오는 9일부터 새로운 얼굴로 바뀝니다.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국내외 및 지역사회의 전반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동안 정치·경제·사회·여성분야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필치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월요광장’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박현수 박사



안진 교수



이상갑 변호사



이병화 교수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대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박사 ▲서울대 경영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장기신포은행 ▲LKFS 선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실, 글로벌경제실 수석연구원

◇안진 광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대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박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학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광주여성민우회 상임대표(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현)

◇이상갑 변호사

▲서울대 졸업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소록도 한센병 보살소속 한국변호단 간사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이병화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 졸업 ▲미국 조지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프랑스 국립파리정치대학 경제학 박사 ▲제 21회 행정고시 합격 ▲OECD 개발연구원 연구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관 ▲광주시 정무부시장

光州日報社

美유학 한국학생 10만명 육박

93,728명...출신국 중 1위

한국에서 ‘교육 엑서터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수가 조만간 1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4·4분기 기준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수를 9만3천728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로, 출신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CE는 한국에 이어 인도(7만6천708명), 중국(6만850명), 일본(4만5천820명) 순으로 미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낸 것으로 집계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04년말 7만3천272명에서 2005년말 8만3천854명으로 12.6% 증가했고, 작년(9만3천728명)에 10.5%가 늘었다.

한국 출신 유학생 가운데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3만9천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 유학생도 3천749명에 달해 한국의 조기유학바람을 그대로 보여줬다. /연합뉴스

제52회 호남예술제
4월 3일~12일 접수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유망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총보실 1588-5051 ▶ T.(061)360-5000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아침, 저녁 하루 두알 **우리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광고심의필: 902-0200
유원양행
www.kwada.co.kr